

[서식3]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하랑 DokDo HaRang
<p>❖ 목적</p> <p>- 사실, 독도 공모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독도’ 그리고 ‘다케시마’, 이렇게 2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작은 섬이 엄연한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역지를 부리며 전 세계에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그 나라, 일본에게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래서 독도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의 대항은 비록 ‘무대응’일지라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단지 ‘몰라서’ 하는 무대응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독도에 대해, 그리고 독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다.</p> <p>+ ‘노래 작곡’을 선택한 목적</p> <p>- 음악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그 주제의 의미를 그대로 품으면서 훨씬 더 가볍게 풀어낼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쉼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바쁘고 지친 하루 가운데 ‘캠페인’이라는 진지한 주제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이용하였다.</p> <p>❖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p> <p>- 노래 작곡/작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처럼 정해진 틀이 없는 상태에서 독도와 관련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길고 긴 고민 끝에 멜로디 코드를 완성했다. 하지만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멜로디는 수없이 많기 때문에 또 다른 난관을 겪는 것만 같았다. ‘독도사랑’이라는 주제에 맞는 노래를 만들려고 낮밤으로 노래를 구상하고 반복하여 피아노를 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감정은 “신선함”이었다. 단연 “힘듦”이란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는 ‘뿌듯함’과 예체능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훨씬 우리 맘을 더 가득 채웠다. 랩 가사 한글자, 한글자를 신경쓰며 작성하였고, 독도의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 내가 독도라면 어떨까?’라며 끊임없이 나를 독도에 대입하여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독도가 바로 우리 노래가사 안에 들어 있다.</p> <p>- 독도 홍보 캠페인 준비. 막상 캠페인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을 홍보하여야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판넬을 제작하기 전에 판넬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명함과 스티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표를 만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제작회사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었다. 결국, 판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이었다. 질문 4가지와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판넬 안에 정리해서 넣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몇 명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뿌듯했다.</p>	

❖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독도하랑(DokDo HaRang) / @HaRangDokdo

- 위 이름과 아이디는 바로 트위터(<https://mobile.twitter.com>)에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했다는 증거랄까. 주로 노래의 티저와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어로 올렸고, 중요한 정보들은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우리의 티저가 많은 호응을 얻어서 좋았다. 한번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는 날이 있었다. 우리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번역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찾아보니, 다케시마로 번역해야지만 일본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름을 놔두고 다케시마를 사용한 억울함도 있었다.

❖ 주요 성과

- ‘독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부터 알아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독도에 관련된 정보 흡수
- 학교에서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 나눔과 공유
- 강남구청역 주변 공원에서 독도 사랑 홍보와 캠페인
-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독도가 아닌 독도 자신의 입장에서 본 신선한 시각에서의 가사 작사
- 마치 바닷가를 보는 듯한 몽환적인 피아노 반주와
독도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해본 코드로 노래 <꽃샘바다> 작곡
- ‘섬’이라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일출’을 이용해 뮤비 제작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 이번 <독도 공모전>을 계기로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자세한 근거들이나 일본의 주장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활동을 통해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이치에 맞지 않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저 ‘독도’하고 물어보면 ‘우리 땅’이라는 말만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저 작은 습관처럼 튀어나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왜?’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알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빠서 일수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은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구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독도를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이나 하루하루 살기 벅찬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 아름다운 독도를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독도는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라고. 형용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독도의 생물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이 되어버린다면,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들이밀고, 그 땅을 밟을 때 ‘원래는 우리 영토였는데...’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숨을 내설 것이다.
- 우리 독도하랑(팀)은 사람들의 귀에 부담 없이 들을 수 노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일본에 대항하며,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인정을 받아서 수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칠 것이다.